

서울

7일(목)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열여 사업평가, 회칙개정안 등 논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체대회)가 오는 7일(목) 늦은 5시 반 사회과학관 401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행부, 분과 1차 기 평가 등을 통해 방학기간과 2학기 시작을 앞두고 논의할 것들이 △기독교분과 '빛을 찾는 사람들'이 '현희의 사람들'로 명칭을 변경하는 인준보고 △합합 동아리 '스모비(hugs day)'의 인준과 2개 동아리(각각 기독교분과, 봉사분과)에 대한 인준 △회칙개정 △동아리 기금등 지급 등이 의결됐다.

산악부 이주원군 K2 등정길 올라

우리학교 산악부 이주원군이 K2(8,611m) 등정을 위해 지난 31일(목) 출국했다.

이군은 동국 park's grandam k2 expedition(이하 히말라야 K2등 원정대)에 의료담당 일원으로 오는 8월 15일까지 남동풍(아부리리풍)을 동반부트란한 원정에 참여한다. 이번 K2등 등정은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히말라야 8,000m고봉 14좌 중 13좌에 오른 등반대상 박석식(동국 산악회)씨를 주축으로 14좌 완등을 도전한다. 한편, 출국을 앞둔 지난 28일(일) 동국대학교 증강당에서 히말라야 K2등 원정대 발대식이 열려 원정대의 안면을 가늠했다.

동양어대 출범식 교양학교도 열려

동양어대는 지난 30일(수) '한총련 출범식' 새내기 교양학교를 사회과학관 402호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출범식에 참가하는 새기들이들 위해 △한총련의 역사 △한총련 진군가 등 노래 배우기와 사대대 울릉대 강연하는 울릉배우기 등 문예학교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연변과학기술대학과 교류협정체결

우리학교는 지난 달 28일(일) 충주에서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과 일단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 날 조신익은 조규열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등 학교 관계자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 이사 등 일행이 참가한 가운데 두 대학 간의 대표는 교수, 학생교류와 학술자료 및 정보교류 등을 내용으로 교류협정이 서명했다. 이번엔 '교류협정'을 맺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은 연변에 위치한 과학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조선학의 민족학으로 설립된 우리대학의 10개 대학과 교류하고 있다.

전자물리학과 모교방문의 날 진행

전자물리학과 모교방문의 날이 지난 3일(일) 저녁 일진대관에서 열렸다. 이번 일드리는 4일(월)에 열린 15일(일)을 위해 열린 이 행사에는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점심식사와 축구, 축구, 2인 3각게임, 사물놀이 등이 이어 진행됐다. 이와관련 학생회장 이종운(90)군은 "많은 선배들이 와 주시고, 재학생들이 도와주시고 즐겁고 하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같이 열심히 단결하는 물리학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용인

동유럽학대, 월드컵 대회 오는 8일(금)까지 진행

동유럽학대에서는 지난 4일(월)부터 오는 8일(금)까지 '동유럽학대 월드컵'을 개최한다. 동유럽학대학과 6개과가 모두 참가하는 이번 월드컵은 4일(월)에 예선전을 시작 5일(화)부터 리그전을 펼치고 8일(금) 결승전 및 시상식으로 막을 내린다. 시상식에서는 1등, 2등, 3등 팀에게 트로피가 주어지며 6등(수)에는 현충일 관례로 행사한다.

동유럽학대 학생회장 정기수(체과 97)군은 "많은 학생들이 대중에 이후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과다로 헤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시 한번 학생들이 신나게 뛰노는 대회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주년 민주동맹 한마당 개최

민주동맹에서는 오는 8일(수) 12시 자택대 대강당에서 '왕산20주년 민주동맹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왕산 20주년 축하행사 및 민주동맹운동 헌의 합동 추모대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조종욱(인문·사학 88)씨는 "행사가 잘 치러져 동문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 현재 유망 무실한 왕산 민주동맹의 재건전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변부두 11학 반까지 동문들이 모여 20년 왕산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민주와 통일을 위해 힘을 모아 왕산 동문들의 새로운 태도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아프리카어과 모교 방문의 날 열려

아프리카어과 학생들은 지난 6일(일) 소 운동장에서 모교 방문의 날을 개최했다. 일선에서 한 번 열리는 이번 행사는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의 사인(인)으로서의 조언을 듣는 자리로 선배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리는 휴식의 시간을 목적으로 간단한 체육대회와 식사, 뒷풀이, 간단한 게임 등이 진행됐다.

서반어과

'퍼포먼스의 이론과 실제' 강연 열려

서반어과 연극은 정영민 교수의 초청으로 예술창작집단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 대표인 퍼포먼스 아티스트 신리(서반어과 78)씨의 '퍼포먼스의 이론과 실제' 강연이 지난 달 31일(일) 교양관 303호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 신리씨는 "퍼포먼스의 목적은 시, 음악, 사회적 이슈 등 동시에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과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다"며, "모교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강연은 교육원 한일강연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 실습 및 '교과서해석서'를 주제로 한 이론강연 등을 진행했다.

주한 폴란드 대사 초청 강연회 개최

지난 1일(금) 이른 오전 206호에서는 폴란드어과 주한 대사 Tadeusz Chromiec(타데우스 크로미에츠) 신임 주한 폴란드 대사 초청 강연이 열렸다. 이번 강연회는 △강연 △폴란드 주요 도시 소개 △질문의 및 응답 순서로 늦은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이 동안 진행됐다.

학생회장 이재호(95)군은 "이때까지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폴란드에 대해 직접 대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생생하게 폴란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경제관계와 정交的에 대한 강연이 우리과의 진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5회 부총장배 축구시합, 전자공학과 우승

지난 달 28일(일) 축구 동아리 헤르메스 주한 5회 부총장배 축구시합 결승전이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시합에서는 전자공학과가 1대0 골든볼로 이겨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과 대항 축구시합으로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이번

대회는 총 16개 팀이 참여해 21일(월)부터 28일(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6~7 경기를 치르며 진행됐다. 동아리 회장 박영근(정보산업공· 전자공학 00)군은 "예년보다 많은 새내기들의 참여로 비전담 있는 경기가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신입교원 총원 지원을 저조

2001년 하반기 신입교원 총원 결과 양배율 1명(서울)을 평, 용인 1명(모집)에 10명여 지원해 경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배율 서울배율 열여 학부과 동아리어는 각각 통, 번역 전공과 동아리어와 전공의 교수들을 모집했지만, 1명만 지원해 이번 학기 신입교원을 채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용인배율 포터 포터과와 경영정보학과도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의 3배수가 넘지

못해 학교규정에 따라 신입교원을 선발하지 못하게 됐다. 교수처는 "예년과 비슷한 결과이지만, 과에서 모집 전공분야를 너무 협소하게 하는 등 모집과정에서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신입교원 실사는 지난 달 28일(월)부터 학과 기초심사에 들어갔으며, 전공심사, 외부심사를 마치고 오는 18일(일)까지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9일(토) 베트남어과 동문체육대회 열려

베트남어과는 오는 9일(토) 늦은 2시 반 대운동장에서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34년간 배출된 선배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축구, 발구름, 피구등 체육경기를 진행하

고, 선배들이 준비한 비백상으로 민찬 자리가 열렸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장은성(97)군은 "오랜 선배배우자간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선배배우자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상대 노래대 '맥박' 작은공연 개최

상경대 민중가요 노래대 맥박은 지난 달 30일(수) 늦은공장에서 1학기 작은 공연을 열었다.

"노래가 우리의 삶이여"란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민중들이 노래할 수 없는 노래를 삶의 밑바닥에 비유해 맑음, 흐림, 곁의 순서로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을 위해 맥박 26명의 학생

들은 한 달 전부터 연습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맥박 배장 김해옥(상경·무역 00)군은 "연습과에서 비교할 수 없는 화합의 열기가 느껴질 수 있었다"며, "민중가요를 접하다 보니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나해 연구비 수주, 55억 1천여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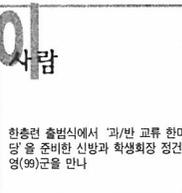
지난 달 28일(일) 합동처장단회의를 통해 2000학년도 연구비 수주내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 위탁기관별로 따져보면 정부기관이 33억 5천여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업체 13억 1천여만원, 정부출연기관 4억 4천여만원, 정부 투자기관 1억 2천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주금액 전체 합계는 55억 1천여만원

으로 이는 지난 1999학년도에 비해 전체 합계에서 두배가량 증가한 수치다.(1999학년도에는 29억 9천여만원) 연구비 수주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정보산업공학과(수), 기초과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순으로 나타나 이 공과대학 연구비 연구비 지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사랑하기까지

개 17회 FBS 가요제 가 지난 달 30일(수) 용인배우기 노천극장에서 약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흥겹게 진행됐다. 이번 가요제에는 '내게로 데리다'를 부른 천하대왕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휘는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연인과 함께 부르는 가요제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민석, 이희진(생명공학부 00) 연인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총련 출범식에서 '과'만 교류 한마당'을 준비한 신봉과 학생회장 정경연(90)군을 만나

"대의체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합니다"

신문방송학과 과에서 만난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정경연(90)군은 몇 안된 과의 과장 때문이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감질 것 같은 실컷 웃음을 비치고 있었다. 그는 이번 한국대학교 학생회장(한총련) 출범식 둘째 날에 열린 '신문방송학과 과'만 교류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만 교류한마당은 9월 한총련 출범식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과'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교간의 교류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의 신문방송학과를 대표하여 이 행사를 준비하는 만큼 신석 부처이 상당히 볼 법도 했다. 그는 "준비를 맡게 될 것 이란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5.18 조지 잡매와 순례를 위해 서울지역총학생회장(서총련)과 함께 광주에 내려갔을 때 처음으로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서총련 내에서 우리 과가 모범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하며 웃는다. 실제로 신봉과 내에는 6개의 학과가 존재하며 학생회와의 연계활동도 활발한 편이라고 한다. 지난 달 공주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이번 달 출범식(1일)까지는 열흘이 약간 짧은 기간이다. 촉박한 시간과 심적 부담은 준비과정의 큰 장애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는 "합참했 했 고. 하지만 저보다 과 집행부들이 수고도 많았습니"라며 후배들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리에 집행부

로 일했던 그것기에 후배 집행부를 생각하는 마음도 유달랐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는 집행부 시절부터 많은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유명한. 작년 여름 농활을 갔을 때, 농민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술에 취하고 말았지만, 쓰러질 듯 한 몸을 가누며 자신이 맡은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리가 많은 이번 행사에 얼마만큼의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과'만 교류한마당 같은 행사는 첫 발걸음일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궁극적인 목표는 '대의체계의 강화'가 아닐까요" 그가 말하는 '대의체계'란 무엇일까. 그는 "교과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학교간의 교류가 활성화되

면 한총련 내부에서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단과대 학생회장 이상입니다. 일반 학생의 의견을 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류가 점점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연달아 한총련에 대해 '사랑의 매'를 물었다. "이번 9월 한총련 의장 선거에서 한총련 조직 내부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당선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만이 아닌 생산적 비판과 실천을 앞세우는 정근. 그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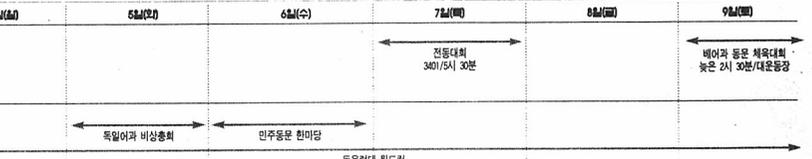
서울 배움터

Table with columns: 구분, 이점,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Rows include various food items and prices.

용인 배움터

Table with columns: 구분, 이 문 관, 후 복 관. Rows include various food items and prices.

Table with columns: 4월(목), 5월(토), 6월(수), 7월(목), 8월(금), 9월(토). Rows include '이슈' and '용인'.



글을 받습니다

지역: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제한 없음 / 매수: 200자 원고지 5~6매 / 마감: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투고방법: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나우 OEDAE, e-mail oedaexpress@harmail.net) /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평해 주십시오. maincc.hufs.ac.kr/~weekly

홍익은 Hufs(Hanky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해외 전문대학이다

외대학보

비둘기 칠관 학우들의 생활상 담겨야

비둘기 칠관의 이름이 낮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연세나 비둘기 칠관을 보면 모집 광고도 행사 안내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대자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 겹치는 모습이 보인다. 학우들의 세세한 생활이 담길 수 있는 광고가 실릴 수 있으면 한다.

권오진(서양어·독일어)

학교 지정된 곳에 배포해야

이번에 들어온 새내기 입니다. 그 전에는 외대학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외대학보의 배포함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외대학보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대표하는 신문인 학관 1층에 그냥 공개채널이든 또 1건물 1층에든 공개채널이든 처음에는 우리학교 신문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었던 지경만 곳에 놓여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효성(서양어·서반어) 01

웅인, 학문의 조속히 이행해야

웅인의 학교와 학생의 사이에 합당한 합의의 이행이 잘 실천 되었으면 한다. 합의안이 만들어진 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서로 잘 타협하여 조속한 이행이 되었으면 한다.

김중복(정보 산업공·컴퓨터공학) 04

기사가 어려워요

학보의 기사가 새내기인 내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사의 내용은 물론, 쓰인 단어가 일상 용어와는 다른 면이 보여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점을 교정해주었으면 한다. 김성진(서양어·서반어) 01

나는 숨쉬고 싶다?

할레르웨이 1번콜 6층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올라간다. 계단은 끝이 없다. 숨이 차 오르고 땀이 마르다. 그러나 어느 층에도 정수기 하나 보이지 않는다. 지갑에는 마땅히 만원짜리 뿐이고, 시원한 물 한 잔도 목이 갈심하다...2건물과 3건물에는 정수기가 한층씩 하나씩 이층씩이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강의실에 들어가면 결석도 없는지 50~60여명이 앉았어 있다. 강의실 뒤쪽에 자리잡고 앉아 고민을 시작한다. 교수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포크레인 소리를 감수하며 참문을 열어 들 것인가?

결국 바람도 얼마 들어오지 않던 참문을 닫으면 질질 떨어지는 생각에 열어 두기로 한다. 계절학기라는 듣는 선택이 기대 다른 학교에는 강의실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더운 여름에 계절학기를 듣는 것이 힘든데 특히 외대는 강의실은 초만원이고 그 열기는 강의실을 휘감는다고 한다.

이화여대의 친구는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머리가 어질거린다고 한다. 하긴 이화여대는 돈이 마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또 한번 고민해본다. 에어컨이 없어 강의록 제대로 듣기가 힘들다고 하면 공부도 안 하면서 쫓겨나고 하겠지? 강의시간에 공사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면 나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 결국 나의 학습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강 시간. 어디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학생회관 휴게실은 에어컨 때문인지 인기척이 없다. 7층 학우 중에 참실 명이라고 여가서 쉬 수 있을까 싶다. 어디 그늘이 없나? 바람이 실랑실랑 불던 마네프라가 너무 아름답지만 모래바람 날리는 지금의 마네프라는 분노와 아쉬울 만큼 기대 한다. 선택들은 학교가 살아져서 빨리 졸업하면 좋겠다고 하고, 지금 1학년들은 4년 동안 계속된 공사에 익숙해지는 게 아예 마음 편하겠다고 생각을 한다. 또 안경피면 그곳에서 학생들

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지금도 강의실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그대라고 무엇이 달라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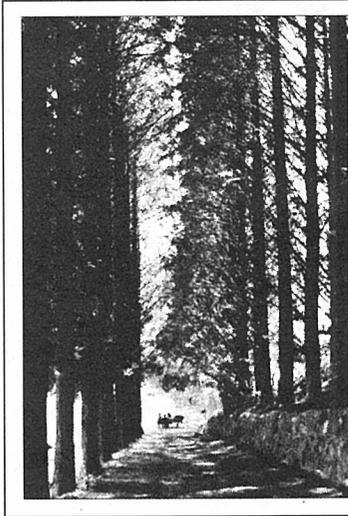
학기초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는 자리 정갈한이 벌어지던 했지만 이제는 나무 울탄 배꼽이 들어있고, 빨간 흙들이 날 부러져 있다. 잔디밭이 아니라 식물이들만 있다. 피할게 좋더라도 살아놓지.

여학생휴게실은 풍자어 담배라는 사람들과 안 피는 사람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다. 금방이라도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이미 우리 학교는 그했다. 어쩔 수 없지, 돈이 없어서 정수기도 손바닥만한 잔디밭이고, 에어컨이고, 휴게실이고, 다 달라지만 몇 억 드라는 공사는 공짜로 누가 해주는 건가. 경제학의 많은 나무들과 숲, 조종한 반의와 한의하고 시원한 분위기가 부럽기만 하다.

이렇게 조용히 쉬 곳조차 없으니 나의 학습태도와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본다.

지승경(사회·정치외교) 00



사진부

사

사생활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체 옆에 있는 애벌레들을 보고 귀로만 알아가는 애벌레들의 이야기가 담긴 '꽃들에게 희망을' 말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쳐 사랑할 줄 아는 나루의 이야기 '아강이여 주는 나루' 하루하루 많은 것들에 꽃겨사는 우리에게 녹색 그늘을 만들어주며 서로를 믿고 믿어서야 하는 경쟁의 논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명작의 숲' 이곳에 있어있으면 어릴 적 읽은 동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독도수호대 뜻 기려야

지난 5월 27일 슬럼잡자 전복으로 난데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 했던 분들이 있다. 독도수호대 위해 젊음을 과감히 던졌었던 분들...

정체없이 마르고 한숨 돌리고 그리고 또 다시 땀을 흘리고 일어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요즘이다.

독도운동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시선 분들의 모임인 '독도 수호대'는 그리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봐도 울컥하게 된다. 나그네는 일본측의 독도방위를 비롯, 역사적 곡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촉각세우기로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어 선행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소박한 민중주의가 가져와 흐르고 있는 모임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국이 얼마나 아파야 하는지에 대한 진중함 품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원 5만원이라는 기해 민중적(?)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박한 활동비(?)로 하루를 그러나 참으로 즐겁게 살았었던 분들, 특히나 유명을 날리신 고 김재호(28)님과 이미영(30)님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제자리에서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 때문에 그리도 싱그러움 품음을 한탄하셨던 것일거다. 몇 사람의 소우가 아닌 평범이든 민중들이 도대체 묻혔는지 독도가 갈래 제자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마이가 되어준 사람들...

말마따나 할 일을 모두 끝내지 못한 조바심에 죽음을 그 순간을 기억하고자 할까 아니면 은근한 눈물을 떨구고자 했지만 울컥했던 숨을 지는 해에서라도 영의코자 오늘도 독도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 살아있는 가까이 두지 못했던 독도를 이제는 바람과 햇살만이 그 주위를 유유히 휘돌아 온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좋고 헌법이 아닌 온전한 것이라 사료되는 순간이 돌아오길 염원하고 있을지... 정직하게 삶을 꾸리는 사람들의 눈빛이 유난히 그리로 날아간다. '부디'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있으시길, 그 빛나던 눈빛만이라도 영동하시길 바랍니다.

유혜림(동유럽·체코어) 99

외대는 정말로 고등학교인가

외대를 다닐수록 실망이 커져간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에게는 학교 시설에 대한 불만이 주 크다.

일단 우리 학교가 작은 규모였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학교의 규모가 작은 것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학교의 시설과 운영을 하는 것은 별반이 많다. 일단은 보기만 해도 낙후된 건물과 시설은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미안스할까까지 한다.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작은 규모면서 아주 깔끔하고 잘 꾸며놓은 서강대가 부럽기까지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별명인 고등학교인 우리학교는 정말로 우습게도 매우 내외 학교의 정문과 후문을 잠근다.(물론 폭풍도 잠근다.) 12시가 되면 학교에 출입을 금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학교의 건물은 265일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또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이 어떻게 24시간 운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시험기간이 되면 24시간 운영을 하지만 그것도 오히려 학생들의 버려진

기식의 공부를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평소 도서관을 24시간 운영을 해야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초저녁만 되어도 쉽게 어두워진다. 그때 분관 길을 걸을 때 어두운 밤에 걸다 보면 불편함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바로 학교 내에 가로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남학생들은 그나마 밤이나 어두움에 대한 공포감이 없지만, 저녁에 동아리나 과의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자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여자학생들의 편의를 조금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학교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금은 21세기인데 대외어라는 곳의 강의실의 의자와 책상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19세기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 낙후되고 저저저한 책상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낙후된 환경이 학생들을 강의실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느껴지는 세한 불편함을 고쳐주는 것에서부터 애교심이 생겨날 것이다.

김중복(서양·독일어) 00

바보같지만 뭔가 걸림돌이 될만한 게 있었을 것이다

-이원웅



장관, 풍력관이 일본 말 풍력관이다... -외대통역대학원 일 자리 찾기 위원회

지침이도 받은 품 풀거린다는데... -오늘의 권인 700-0808

우리나라 대표는 일본 쪽이라는데 '풀' 일 어 먹어서 병이아기 되었나? -지촌

나를 일본외대에 보 내워 -병이아

어는 누구일? -회의론자

교과서 왜곡으로 이 독을 사할때도 있잖나... -우익이랑 이름으로 단결하라

고개속이고, 말없는 남자아, 그대는 남이 해곡'에 대해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나왔다... -민중주의자

왜곡할 땐 말없이! -꽃선영화

첫눈에 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야 -내맘 내마가

일본이 못하는 사람 아닌것? 왜내 와서 일본이 좀 배우라고 해! -입학화

당신이라면 미국에게 멋진을 신고하셨습니까?

2002학년도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본교의 재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에 출신고교에 방문하여 입시안내와 학교홍보를 진행하는 모교 방문 입시홍보단을 모집합니다.

입학과에서는 자신의 모교와 후배들에게 우리학교의 Unique한 자랑거리와 다양한 입시진형을 홍보할 당찬 외대인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대상: 본교에 서울·웅인 재학생 중 본교에 최근 5년간 30명 이상 합격한 고교 출신자.
 - *대상고교는 홈페이지에 입학과·교무과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 활동내용: 우리 대학의 다양한 홍보 및 정보 제공과 2002학년도 입학안내 *1개교당 3명~1개교(팀)로 편성되어 출신고교와 사전연락 후 방문홍보
- 방문일정: 2001년 6월 22일(금)부터 7월 31일(화)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① 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6월 12일(화) 까지
 - ② 지원서의 배부: 홈 페이지 Download, 서울캠퍼스 입학과, 웅인캠퍼스 교무과
 - ③ 지원서의 접수: E-mail(admin@hufs.ac.kr), 서울캠퍼스 입학과, 웅인캠퍼스 교무과
- 방문대상지 선정: 동일 고교에서 많은 지원팀이나 지원자가 있을 경우 1개팀을 선발 예정
- 방문대상 고교 발표: 2001년 6월 15일(금), 홈페이지와 서울 입학과 웅인교무과 게시판
- 모교방문단 혜택 및 사정교육
 - ① 일시: 2001년 6월 22일(금) 17:00~18:00
 - ② 장소: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
- 모교방문 입시방문단 지원: ① 모교방문시 교통비 및 홍보활동비 지급 ② 학교기념품 및 홍보물 제공

※지정된 내용은 서울캠퍼스 입학과나 웅인캠퍼스 교무과로 연락바랍니다.

○ 서울캠퍼스 입학과: 02-961-4471-3
○ 웅인캠퍼스 교무과: 031-330-4023-4

재학생 모교방문 입시홍보단 모집

2002학년도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본교의 재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에 출신고교에 방문하여 입시안내와 학교홍보를 진행하는 모교 방문 입시홍보단을 모집합니다.

입학과에서는 자신의 모교와 후배들에게 우리학교의 Unique한 자랑거리와 다양한 입시진형을 홍보할 당찬 외대인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대상: 본교에 서울·웅인 재학생 중 본교에 최근 5년간 30명 이상 합격한 고교 출신자.
 - *대상고교는 홈페이지에 입학과·교무과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 활동내용: 우리 대학의 다양한 홍보 및 정보 제공과 2002학년도 입학안내 *1개교당 3명~1개교(팀)로 편성되어 출신고교와 사전연락 후 방문홍보
- 방문일정: 2001년 6월 22일(금)부터 7월 31일(화)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① 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6월 12일(화) 까지
 - ② 지원서의 배부: 홈 페이지 Download, 서울캠퍼스 입학과, 웅인캠퍼스 교무과
 - ③ 지원서의 접수: E-mail(admin@hufs.ac.kr), 서울캠퍼스 입학과, 웅인캠퍼스 교무과
- 방문대상지 선정: 동일 고교에서 많은 지원팀이나 지원자가 있을 경우 1개팀을 선발 예정
- 방문대상 고교 발표: 2001년 6월 15일(금), 홈페이지와 서울 입학과 웅인교무과 게시판
- 모교방문단 혜택 및 사정교육
 - ① 일시: 2001년 6월 22일(금) 17:00~18:00
 - ② 장소: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
- 모교방문 입시방문단 지원: ① 모교방문시 교통비 및 홍보활동비 지급 ② 학교기념품 및 홍보물 제공

※지정된 내용은 서울캠퍼스 입학과나 웅인캠퍼스 교무과로 연락바랍니다.

○ 서울캠퍼스 입학과: 02-961-4471-3
○ 웅인캠퍼스 교무과: 031-330-4023-4

HUFS English Camp

연수기간: 2001. 6. 25(월)~7. 28(토) / 5주 학습

연수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웅인캠퍼스)

모집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모집일정: 105명(1개반 15명 정원)

모집기간: 2001. 5. 28(화)~6. 8(금) 09:30~17:00까지

참가비: 176만원(숙식, 교재, 현장학습 등 전반적 포함)

모집대상: 본교 홈페이지(www.hufs.ac.kr) → 입학안내 → 기타안내

영어회화캠프 주안 일정

구분	일	화	수	목	금	토
07:30	기상, 아침운동					
08:00	아침식사					
09:00	원어만담회와 오전 회화					주말
10:00	오전 정규수업(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테스트
12:00	점심식사와 휴식					
13:30	오후 정규수업(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귀가후
15:30	원어만담회와 오후 회화					일요일
17:00	저녁식사와 휴식					오후
19:00	아간 토의	아간 토의	토의	아간 토의	아간 토의	8시까지
	특별활동	/토의	특별활동	/토의	특별활동	일교
22:00	취침					

* 연수기간 중 모두 영어로 진행하며, 참가신청은 사정없이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031-330-4803-5
http://segeco.hufs.ac.kr/sec

한국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